

다시 펼쳐진 한국시리즈... 호랑이, 곰 잡았다

KIA, 두산과 시범경기 5-4로 재역전승
선발 헛타-장원준 등 베스트 멤버 총출동



챔피언스필드에서 '다시 보는 한국시리즈'가 펼쳐졌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이적생' 이영욱의 결승타로 5-4 재역전승을 연출했다.

지난 가을 한국시리즈에서 만났던 두 팀은 베스트 멤버로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했다.

헛타가 선발로 나선 KIA는 김주찬(1루수)-김선빈(유격수)-비나디나(중견수)-최형우(좌익수)-나지완(지명타자)-안치홍(2루수)-이범호(3루수)-김민식(포수)-이명기(우익수)로 라인업을 짰다.

장원준을 마운드 전면에 세운 두산은 박건우(중견수)-파레디스(우익수)-오재일(1루수)-김재환(좌익수)-양외지(포수)-최주환(지명타자)-오재원(2루수)-허경민(3루수)-김재호(유격수)로 맞붙을 냈다.

선두타자 최형우의 2루타로 2회를 연 KIA는 나지완과 안치홍의 연속 땅볼로 선취점을 얻었다. 5회 나지완의 볼넷과 안치홍의 좌측 2루타로 잡은 무사 2·3루, 이범호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김민식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3-0이 됐다.

마운드에서는 시범경기 이후 정규시즌 개막전을 책임질 헛타의 리허설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헛타의 성적은 3이닝 3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1회 선두타자 박건우를 삼구삼진으로 잡은 헛타는 두산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 파레디스는 초구에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3번 오재일 역시 공 3개로 삼진으로 처리했다.

2회 2사에서 최주환에게 첫 안타를 내준

◇광주전적(13일)
두산 000 004 000 4
KIA 010 020 11X 5
▲승리투수= 이민우(1승) ▲세이브투수= 김윤동(1세이브) ▲패전투수= 린드블럼(1패)

헛타는 오재원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며 2회를 마무리했고, 선두타자 허경민을 내보낸 3회에는 김재호에게 6-4-3 병살을 유도하면서 노련미를 발휘했다.

앞선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한 차례 등판해 직구 28개만을 던졌던 헛타는 이날 21개의 직구(148km)와 함께 커브(123km·7개), 슬라이더(136km·5개), 체인지업(137km·6개) 등을 구사하면서 감을 점점했다.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선발 후보' 박정수는 4회 탈삼진 하나 포함 삼자범퇴로 막은 뒤 5회 볼넷 하나만 내주는 깔끔한 피칭을 이어갔다. 하지만 3-0으로 앞선 6회 박정수가 6안타를 맞으면서 경기가 3-4로 뒤집혔다.

두산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KIA가 7회말 1사에서 이범호의 좌측간 2루타에 이어 이명기의 안타로 4-4 동점을 만들었고, 8회 승리를 확정하는 결승타까지 기록했다. 8회말 선두타자 최원준이 중견수 안타로 살아나간 뒤 비나디나의 대수비로 들어갔던 이영욱이 린드블럼을 상대로 좌측간을 가르면서, 최원준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9회 등판한 김윤동이 공 11개로 마지막 이닝을 삼자범퇴로 끝내면서 KIA는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승리팀이 됐다.

한편 14일에는 '트리플 크라운'에 빛나는 KIA 양현종과 두산의 새 외국인 투수 후랭코프가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범경기 열기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2018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13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고 있다. 평일임에도 2955명의 야구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KIA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위대한 엄마의 도전 “끝까지 포기하는 없다”

46세 이도연씨 패럴림픽 노르딕스키 완주
크로스컨트리 혼성계주 등 4경기 더 남아

‘위대한 엄마’ 장애인노르딕스키 대표팀 이도연(46)이 남은 경기에서도 포기 없이 모두 완주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다.

이도연은 13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패럴림픽 장애인 바이애슬론 여자 10km 좌식경기에서 53분 51초 0의 기록으로 13명의 선수 중 11위에 올랐다.

메달권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도연의 ‘완주’는 박수받기에 충분했다. 올해 만 46세인 이도연은 장성한 세 딸의 어머니다.

이번 대회 여자 노르딕스키 2관왕에 오른 미국 켈달 그렛쉬(26)과 무려 20살이 차이 난다. 이도연은 장녀 설유선(25)씨 토레의 어린 선수들과 경쟁하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한 번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10일 장애인 바이애슬론 여자 1.1km 좌식경기, 11일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2km 좌식경기 이후 이날도

끝까지 이를 악물며 결승선을 끊었다. 다음 경기를 위한 체력 안배 차원에서 가관할 수도 있었지만, 이도연은 끝까지 뛰었다.

경기 후 이도연은 “경기 중 코치님이 포기할 권유하기도 했는데, 난 절대 기권할 수 없었다”라며 “끝까지 하더라도 모든 경기에 완주하겠다고 나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 “절대로 경기 도중 레이스를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넘어지더라도, 다치더라도 끝까지 뛰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도연은 앞으로 4경기를 더 뛰었다.

14일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1km 좌식경기, 16일 장애인 바이애슬론 여자 12.5km 좌식경기, 17일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여자 5km 좌식경기 이후 18일엔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혼성계주까지 나선다.

어깨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일정이지만, ‘위대한 엄마’의 아름다운 질주는 계속된다.

/연합뉴스



13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패럴림픽 장애인바이애슬론 여자 10km 좌식 경기에서 한국 이도연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번트 사인 미스 2루타 “잘 쳤지만 잘 못 했다”

‘결승타’ 이영욱의 반성

“잘 쳤지만 잘 못 했다”며 속스러운 미소를 지은 결승타 주인공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5-4 재역전승을 거뒀다. 주인공은 4-4로 맞선 8회말 무사 1루에서 1타점 2루타를 날린 이영욱(사진)이었다.

이영욱은 시원하게 좌측간을 가르며 KIA 신고식에서 결승타를 장식했지만 “잘 맞은 것은 잘 맞았지만 잘 못 한 것은 인정한다. 반성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유는 바로 사인 미스였다.

이영욱은 “주자가 빠르기도 했고 바깥쪽 직구를 노렸던 게 잘 됐다”며 “사실 번트 사인이 나왔는데 사인 미스였다. 덕아웃에 들어가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경기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영욱은 지난 겨울 ‘10억 팔’ 한기주와의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11년 차 외야수다. 한때 삼성의 외야 한 자리를 차지했던 선수지만 지난 시즌 6경기에 나오는 데 그쳤다. 이영욱은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돌파구가 되는 기분이었다”며 “거기에 10억 선수인 한기주와 자리를 바꾼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다”며 트레이드를 이야기했다.

또 “오늘 경기가 낯설기도 했다. 야구선수 수는 그라운드에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라운드에 있으니까 재미있다”며 “마음이 집이 달라졌다. 몇 년간 재활을 하고 안 되면서 마음을 놓기도 했었는데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다. 사람들이 초심을 이야기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새 팀에서 새 출발은 했지만 아직 확실한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이영욱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즐거운 야구를 하겠다는 각오다.

이영욱은 “내 자리를 잘 알고 있다. 오늘처럼 중후반에 역할을 해야 한다. 수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주루는 과감하게 하고, 작전 수행은 철저히 하면서 주전과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감독 경기분석 헤드셋 착용 러 월드컵 변수될까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신태용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헤드셋을 쓰고 코칭스태프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경기분석 내용을 토대로 작전을 지시하는 광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13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소치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으로 러시아 월드컵 출전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열린 ‘월드컵 세미나’에서는 역대 월드컵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들이 논의됐다.

‘월드컵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비디오 반복 시스템(VAR)은 지난 3일 국제축구평의회(IFAB)에서 러시아 월드컵부터 시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FIFA 클럽월드컵부터 시범 운영

된 VAR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도 적용되게 됐다.

감독이 벤치 밖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코칭스태프와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는 헤드셋 사용이라는 규정 변화도 있다.

이에 따라 FIFA는 각 팀에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코칭스태프가 영상을 분석해 감독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헤드셋과 태블릿 PC를 나눠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2016년 리우 올림픽때 시범 적용됐던 연장전 추가 선수교체도 정식으로 도입된다. 기존 교체인원은 3명이지만 조별리그 이후 토너먼트전부터는 연장전에 들어가면 추가로 1명의 선수를 더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다. /연합뉴스

伊 매체 “기성용-AC밀란 3년 계약 임박”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 시티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이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구단 AC밀란으로 곧 이적한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축구 이적시장 전문매체인 칼치오메르카토는 12일(현지시간) “AC밀란과 기성용이 3년 계약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일 내에 최종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최종 합의를 하는 대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성용은 AC밀란으로 오기 위해 다수 EPL 구단들의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AC밀란은 기성용의 전술적·기술적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기성용이 팀

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칼치오메르카토는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주전 미드필더인 기성용은 FC서울에서 뛰다 2009년 스코틀랜드 셀틱FC로 옮기며 유럽 무대를 처음 밟았고, 2012년 스완지시티와 계약하며 EPL에 입성했다.

이번 시즌 초반 부상으로 주춤했으나 부상 회복 후 제 기량을 찾으며 스완지시티의 강등권 탈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여름이면 스완지시티와의 계약이 끝나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된다. 기성용이 AC밀란에 합류하면 안정환(2000~2002년 AC페루자)과 이승우(2017~현재 엘라스 베로나)에 이어 한국 선수는 세 번째로 세리에A에서 뛰게 된다. /연합뉴스